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2016년 10월 2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25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10. 25. (화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
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영호 과장(044-203-5130) 이우일 사무관(044-203-5134)
가스안전공사 가스연구원 이연재 원장(043-750-1108) 서원석 센터장(043-750-1640)

"국내 초고압 용기 제조사 등의 해외인증 부담 경감"

-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개소로 초고압 부품의 성능평가 가능 -

□ 우리나라에도 압축천연가스, 수소의 저장용기와 안전밸브 등 **초고압 첨단 제품의 시험인증·성능평가가 가능**해져 국내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시험인증 애로가 대폭 완화된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'16.10.25(화) 강원도 영월에서 가스안전공사, 국내 관련제품 제조사 등 400여명 참석한 **"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*" 개소식에서** 시험인증 애로 개선을 밝혔다.

* 기간 및 사업비 : 5년('12년～'16년) / 총사업비 305억 원
* 규모 : 연소시험동 등 9개동(부지면적 66,200㎡, 건물 연면적 4,340㎡)

□ **국내 최초, 세계에서 4번째**로 건립된 동 연구센터*를 통해, 우리나라도 수소 등 **초고압 제품의 연구개발, 신뢰성평가, 시험인증을 동시에 수행**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을 갖추게 됐다.

* 캐나다(powertec), 독일, 일본에 이어

○ 국내에서 개발된 수소자동차용 수소저장용기의 경우, 그 동안 **해외 시험기관 통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반**으로 줄어드는 등 제품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* 수소 저장용기 1세트 시험·인증 비용과 시간
  - (해외) 약 2억원, 6개월 이상 ⇒ (국내) 약 8천만원, 4개월 이내

○ **수소저장용 복합용기 제조사 담당자**는 “동 센터의 건립으로 해외 인증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과 함께 해외에서의 제품 시험 의뢰시 발생할 수 있는 **신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해소**되어 **신제품 개발에 투자 확대를 계획**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□ **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**가 **초고압 압축기 및 밸브류, 수소충전소 부품 등 미래의 수출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**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

○ 아울러, 센터가 “국내기업의 시험인증 및 제품개발 지원과 더불어, 가스화재·폭발 실증을 통한 **가스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 등에도** 중요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 고 말했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우일 사무관 (☎044-203-5134)와 가스안전공사 서원석 센터장(☎043-750-1640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에너지안전실증센터 현황**

□ 사업 개요

○ 기간 및 사업비 : 5년('12년~'16년) / 총사업비 305억원

○ 규모 : 연소시험동 등 9개동(부지면적 66,200㎡, 건물 연면적 4,340㎡)

□ 센터의 역할

○ 가스화재·폭발 재현을 통한 가스자동차, 충전소 등 사고원인 규명

○ 초고압 용기·부품 등의 시험인증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지원 등

* 세계 4번째 초고압(수소/CNG) 제품 성능평가

○ 안전거리, 내진 등 가스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실증

* 약 4만평의 부지에서 장기 실증시험 가능

□ 센터의 개소 의의

○ **국내 최초, 세계에서 4번째**로 압축천연가스(CNG), 수소 등 **초고압 제품의 연구개발, 시험인증을 동시에 수행**하는 연구기관 구축

○ 초고압 제품의 국내 시험인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국내 **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**와 신제품 개발 지원 가능

< 센터 배치도 >

